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NEWS

제23호

2 0 1 0

★ ★ ★ ★ ★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CONTENTS

협회사업 상반기 개최실적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 2010. 4. 14~4. 17 ▣	1
제1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0. 2. 2~2. 6 ▣	3
제29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 2010. 2. 17 ▣	5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 2010. 4. 7 ▣	7
제4회 회원사 간담회 ▣ 2010. 6. 22 ▣	8

협회사업 하반기 개최안내

제15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0. 8. 3~8. 7 ▣	10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0. 8. 3~8. 6 ▣	11
제1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2010. 10. 12~10. 15 ▣	12
제1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0. 10. 12~10. 15 ▣	12
※ 제4회 일한경제 심포지엄 ▣ 2010. 9. 15(일본 도쿄) ▣	14

한일경제인회의 특집

프로그램 개요	15
단장단 예방활동	16
주요 발표자료	18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23호

발 행 인 | 조석래
 편 집 인 | 지광훈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한일재단빌딩 4F
 TEL/02-3014-9888
 FAX/02-3014-9899
 인 쇄 | 웃고문화사
 서울시 중구 필동 23-1
 TEL/02-2267-3956
 FAX/02-2268-2361

· 한국측 단장 개회사 (조석래 회장)	
· 일본측 단장 개회사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	
· 한국측 내빈축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 한일 양측 기조연설 요약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27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제언요망서 요약	29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31
기획 연재	
Only-One 일본기업 50 <제6회>	33
한일통계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45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1969년 설치이후 매년 1회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제42회째를 맞이하여 (사)일한경

제협회와 공동으로 2010년 4월 14일~4월 17일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10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단장 등 146명 합계 256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과제에 대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동아시아 경제연대(공동체)와 한일 관계」 및 「향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을 주제로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였다. 양국 경제인들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방향, 부품소재 협력 등 한일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방안,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와 그린비즈니스 협력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가 세계의 장래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나가야 하며 한일 양국이 불가분의 파트너로서 중심축을 이루어 세계경제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리드해야 한단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과제해결을 위해 ‘한일간의 무역·투자의 활성화, 인재교류 활성화, 부품소재 산업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언서’를 양국 정부에 제언하기로 하였으며, 경제공동체형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한일간의 FTA/EPA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조기실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 : 27페이지 공동성명서 전문 참조)

한편, 회의에 앞서 조석래 단장 등 한국 측 단장단 7명은 센고쿠 요시토(仙谷 由人) 내각부 국가전략담당대신, 오카다 가츠야(岡田 克也) 외무 대신,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 正行) 경제산업대신,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재무 부대신을 예방하고 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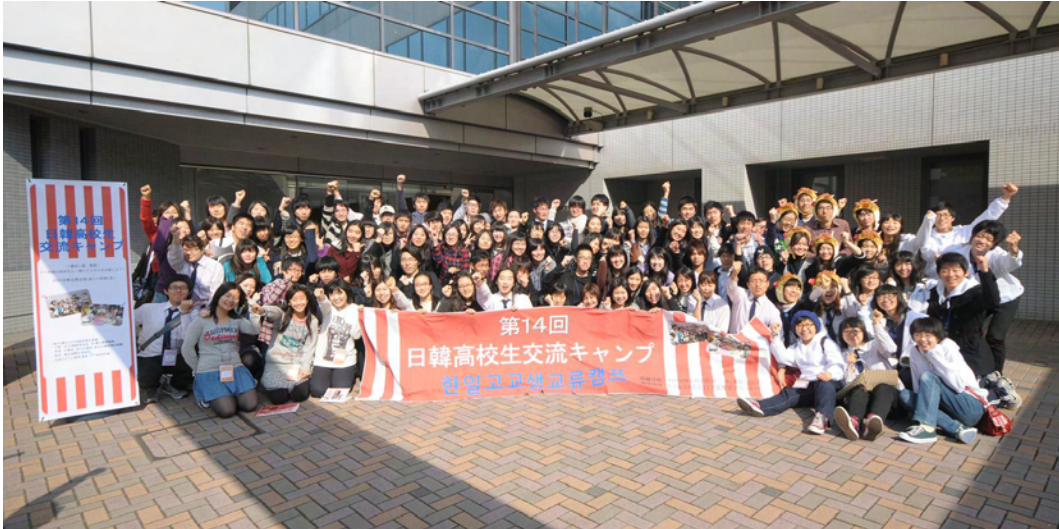
FTA추진, 2012 전남 여수 국제 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서울 G20 정상회의 및 G20 비즈니스 서밋 개최와 일본의 협조, 문화제의 반환 등 한일 관계 증진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금번 회의는 한일의 주요 참가자들로부터 예년에 비해 가장 짜임새 있고 내용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았으며, NHK, TBS 위성방송, 일본경제신문, 산요(山陽)신문, 동양경제일보, 통일일보 등 18개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도 활발한 인터뷰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차기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실효성이 높은 회의가 되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



우리 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2010년 2월 2일(화)부터 2월 6일(토)까지 일본 오사카의 호텔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학생 41개교 49명, 일본학생 24개교 39명 등 총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14회 캠프의 사업발표회에는 주오사카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지역 기업대표 등 많은 분들이 참관하여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NHK오사카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시장 조사 및 사업발표회 내용을 현장 취재하여 캠프의 이모저모를 TV로 방영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업발표회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아바타'의 기술적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맞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기획한 비즈니스 (Culture Cross Shop)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재의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미래의 인터넷쇼핑몰의 전형을 아바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으며, 전원이 참가하여 재미있게 실연을 넣어 사업발표내용을 구성한 것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심사위원 특별상으로는 행동의 불편으로 멀리 온천욕을 갈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온천버스 서비스」가 기획이 선정되었으며, 고령화인구가 늘어나는 한국과 일본의 세태를 반영한 아이템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한경제협회 신임회장/전무 선임 ♣

일한경제협회(JKE)는 6월 9일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회장의 후임으로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미쓰비시상사(주) 회장(현 이사상담역)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전무이사에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미쓰비시상사(주) 상석고문이 선임되었으며, 아끼야마 스스무(秋山 通) 상무이사는 유임되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1937년생
1960 와세다대 이공학부 졸업
1960 미쓰비시상사 입사
1991 미국미쓰비시상사 부사장
1992 이사 취임
1994 상무이사
1998 이사사장
2004 이사회장
2010 이사상담역
〈단체경력〉
2007 일본경단련 부회장(현)
2008 일본무역회 명예회장(현)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1948년생
1971 세이케이대 정치학과 졸업
1971 미쓰비시상사 입사
1994 요하네스버그지점장대행
1999 비서실장
2004 이사 요하네스버그지점장
2008 이사 아프리카CRO
2009 이사 업무부
2009 코퍼레이트담당임원
상석고문

한일경제협회 제29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趙錫來)]의 제29회 정기총회가 2월 17(수) 오전 11시30분에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조석래 회장이 병모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라응찬 부회장이 의장대행을 맡아 진행하였다. 라응찬 의장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정상들이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우의를 다짐으로서 한일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경제협력의 기대감도 커졌으며, 3국 정상들의 만남도 정례화 되어 이제는 한중일 3국의 협력도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가장 큰 행사인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4월 14일~17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환경, 기후 변화, 에너지협력에서부터 FTA, 금융 등 단계적으로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찾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통합의 방향을 주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최용권 부회장[삼환기업(주) 회장], 라응찬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우석형 부회장[(주)SINDOH 회장], 구본준 부회장[(주)LG상사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재선임되었으며, 향후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



느 때 보다도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 경제인간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2010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에 롯데호텔 36층 칼튼 스위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의장대행으로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주)세아제강 회장], 이윤우(李潤雨) 부회장[삼성전자(주) 부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주)경원 회장], 문

규영(文奎榮) 상임이사[아주그룹 회장], 황호균(黃昊均) 상임이사[더페이스샵코리아 부회장], 손봉락(孫鳳洛) 상임이사[동양석판(주) 회장], 이일규(李一揆) 상임이사[베스트웨스턴코리아 회장], 정영현(鄭榮鉉) 상임이사[(주)천마 고문], 지광훈(智光薰) 전무이사가 참석하였고, (주)효성의 김진현 고문이 대리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2009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9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개최

지난 4월 7일(수),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 俊範) 대사 주최로 우리협회 회장단과의 만찬간담회(부부동반)가 주한일본대사관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협회 회장단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구본준(具本俊) 부회장(LG 상사 부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정영현(鄭榮鉉) 상임이사(천마 고문), 황호균(黃昊均) 상임이사(중앙디자인 경영고문), 지광훈(智光薰) 전무이사 등 9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 俊範) 대사, 다카하시 레이이치로(高橋 禮一郎) 총괄공사, 오이케 아츠유키(尾池 厚之) 공사, 다카하시 다에코(高橋 妙子) 공사(공보문화원장), 나가후치 켄지(長渕 憲二) 서기관 등 8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서울재팬클럽(SJC) 멤버로서 나가

이 마사나리(長井 正成) 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다카스기 노부야(高杉 暢也) 부이사장(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와사키 마사히로(岩崎 在宏) 부이사장(한국이토추 사장), 요시오카 토시로(吉岡 俊郎) 부이사장(미쓰비시도쿄UFJ은행 서울지점장) 등 5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분위기 조성 및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석래 회장은 “최근 독도관련 등으로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도 한일 간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계속 관계가 증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한일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더 붙어 살아가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는 4월 15일과 16일 오카야마에서 개최되는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많은 분들에게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JE**



제4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는 「제4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를 지난 6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COEX 3층 E홀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우리협회 상임이사인 황호균 중앙디자인 경영고문을 비롯한 회원 31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원사 간담회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흥미롭고 유익한 테마로 두 개의 강연을 준비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짜임새 있고 재미있는 강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번째 강연은 KIEP 일본팀의 김규판 부연구위원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20여년간 일본을 250여 차례 오가며 ‘일본의 상도’를 편찬하고, 현재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홍하상 논픽션 작가 겸 중앙대학교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상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테마로 100분간의 강연

을 들었는데 참가자들로부터 최고의 강연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우리협회는 회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저명한 국내외 인사의 초청 강연 및

정보 제공, 협회사업 안내, 회원사의 요망사항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 반영하여 보다 유익하고 발전된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어 나아갈 예정이다. **KE**

